
스포츠 정책비전 2030

2026. 9. 4.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추진 현황	1
II. 대한민국 스포츠 비전 및 방향	5
III. 핵심과제	6
[전략 1] 건강수명 연장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6
[전략 2] 신뢰받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15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산업	23
[전략 4] 차별 없이 누리는 장애인 체육	31
[전략 5]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스포츠	36
IV. 추진일정	41

'스포츠 비전' 수립 추진 경과

□ 비전의 목적

- 정책환경 변화가 사회와 개인의 삶, 그리고 체육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체육정책의 현 위치 확인 및 새로운 방향 모색**
- **국정과제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체육 분야 중요 과제와 현장 수요를 더 세밀하게 반영한 **실행지향적 청사진 제시**

⇒ **환경변화와 국민요구에 발맞춘 중기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과제 도출**

□ 추진경과

- **(기본 틀 마련)** 전담팀(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과학원) 운영 ⇒ ①거시환경 분석 및 대내외 체육 정책 등 분석
②비전 및 추진 전략, 핵심과제에 대한 1차 기본 틀 마련('25.10.~11.)
- **(관계기관·현장 의견수렴)** 새로운 시도를 담은 과제 발굴을 위해
①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과학원, 체육학회 의견수렴('25.11.~12.) ②국회, 체육회 주최 국민참여 토론회 정책제언 등 반영('25.11.~)
- **(소그룹 운영)** 전문, 생활·학교, 스포츠산업, 국제, 장애인 등 분야별 소그룹 운영,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검토('25.11.~12. 총 22회, 206명 참석)
- **(비전 과제 도출·협의)** 과제 도출 및 초안 마련('26.1.~), 관계 부처 의견수렴 및 쟁점 조정 회의('26.4.~)

‘스포츠 정책비전’

□ 스포츠 대전환 2030

-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 그간, 아시아 최초부터 세계 4강까지 우리 스포츠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 이제, 메달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참여가 성장으로, 성장이 다시 참여로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생활체육]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전문체육] 엘리트에서 국민 영감으로

[스포츠산업] 115조원 미래 핵심산업



□ 5대 추진전략

스포츠정책은 건강, 복지, 교육, 지역, 산업, 국가브랜드 정책입니다.



□ 스포츠 대전환으로 달라지는 국민의 삶

-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운동하는 국민이 늘면 질병은 줄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며,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 (도약하는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을 넘어 세계 정상급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I. 추진 현황

1 정책환경 분석

인구·사회

저출생·초고령화와 지역소멸

- (인구절벽과 고령화) 0~14세 인구 급감('10년 709만 명 → '23년 557만 명), '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출처 : 통계청, 2025)

- ▶ 총인구 '22년 5,167만명→'25년 5,168만명→'35년 5,082만명→'72년 3,622만명
-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22년 71.1% → '40년 50%대로 감소
- ▶ 고령화 '22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17.5%→'25년 20.6% →'35년 29.9%

- (생산가능인구 감소) 건강은 고령화시대 기본사회의 근간, 생산가능인구 급감 상황에서 노동력의 '질'의 문제가 중요해지므로 생활체육 정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투자로써 필수적

* WHO, '30년까지 운동부족을 주원인으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자 5억여명 예상(연 270억불 비용 발생)

- (지역소멸) '25년 전체 시군구의 40%인 89곳이 법정인구감소지역, 청년층 수도권 이동 등 인구감소 및 유출로 지역 활력 저하

- (지역기반 약화) 지자체 재정 여력 악화로 체육예산은 후순위('17년 전국 지자체 예산 중 1.5% → '26년 1.3%), 공공체육시설 운영 유지의 어려움 심화

재난과 위험사회

- (기후위기 일상화) 폭염일수 및 평균 강수일수의 증가*, 미세먼지의 지속·반복적 발생으로 상시적 스포츠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 수요 확대

* ▲<폭염일수> '17년 13일 → '25년 28일 ▲<평균 강수일수> '17년 100일 → '25년 109일
▲<연평균 PM-2.5(초미세먼지)경주의보> '20~'25년 연평균 36일 (기상자료개방포털 대기환경연보)

- (안전사고·재난) 프로야구 흥행, 전국적인 마라톤 행사 개최 증가 등 다중 운집인파에 따른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및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미흡

* 사례: 안성 스포츠체험시설 추락사고('24.2.), 충북 역전 마라톤 대회 선수 사망사고('25.11.) 등

거시경제 저성장 고착, 스포츠산업 정체

- (저성장) 물가 상승 압력 속 실질소득·소비 증가세 둔화로 최근 1~2%대 성장, '35년 이후 0%대 하락 전망, 가계 여가·스포츠 지출 여력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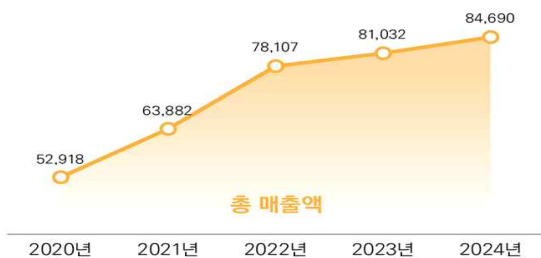
* '25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1.7% 증가^{명목}했으나, 물가 반영 시 0.4%^{실질} 감소

** 운동 및 오락서비스 지출 비중이 오락·문화 지출 내에서 '19년 18.2% → '25년 19.3%로 증가폭이 크지 않음(2019~2025 가계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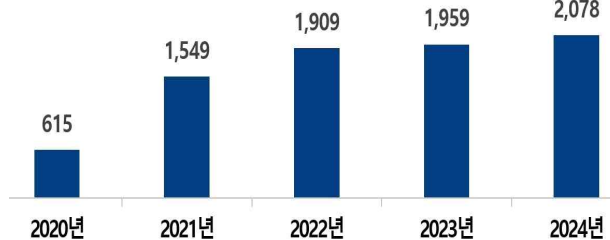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 수출 둔화) '24년 스포츠산업 매출은 84.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그러나 수출 증가율 둔화로 내수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

* <현황> 세계 스포츠시장은 '24년 전년 대비(16,195억달러/2,295조원) 3.9% 성장한 2,387조원, '24년 국내시장 연평균(5년) 성장률은 12.5%로 글로벌 평균 4.6%의 2배 이상

스포츠산업 매출액(단위: 십억원)



스포츠산업 수출액(단위: 십억원)



AI 기반 생활체육·전문체육 혁신

- (AI 시대) 인공지능 범용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등 AI 기술로 인한 경제성장,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커질 전망

- (생활체육 혁신) AI·IoT 기술이 생활체육 참여방식·인프라에도 확산하기 시작한 단계로,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 등 연구개발 착수

* 전국 101개 체력인증센터에 AI 기반 온라인 운동코칭 시스템 도입 예정('26년)

- (경기력 향상) AI·데이터 기반 경기력 분석, 부상 예방, 데이터 기반 훈련 설계, 판정 분석 등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 핵심 도구화

국민주권시대와 스포츠 거버넌스 변화

- (국민주권시대상 반영) 정치·사회 구조가 국민 참여·감시 기반으로 전환 되면서, 체육 분야에서도 공공성·투명성·참여형 정책 설계 요구가 증가
 -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가 단순 여가가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스포츠기본법」에 명문화('22년 시행)
 - * 재원의 확충,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권 등을 보장
- (거버넌스 공정성·책임성 요구 증대) 스포츠 가치에 주목하는 관점 변화*, 체육계 내·외부에서 체육단체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등 문제제기
 - * 안전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 공정한 스포츠, 도핑방지, 선수 권리, 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한 가치 중시
 - (선수인권 보호 및 폭력근절) 정부는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 윤리적 체육계 구현'을 목표로 폭력근절 대책 발표('25.8월)
 - * 스포츠윤리센터 접수 인권침해 신고 건수 : '20년 40건 → '21년 156건 → '22년 212건 → '23년 262건 → '24년 377건 → '25년 635건

K-스포츠 확산과 스포츠 글로벌리더십

- (K-스포츠 확산) 세계인의 호감을 끌어내고 K-스포츠만의 팬덤, 응원 문화 등 콘텐츠를 지속 확산할 수 있게 K-스포츠 브랜드 확대 필요
 - * ▲'23년 전세계 한류콘텐츠 소비자 1억 9,900만 명 중 36.1%가 "한국 스포츠·e스포츠 콘텐츠를 접한 경험 有" 응답 ▲KBO·K리그 콘텐츠 유튜브 조회수, '19년 6백만회→'25년 2.5억회로 약 4배 증가
 - (한국식 응원문화) 한국 야구장의 열정적 응원문화가 해외에서 주목, 한류 관광수요* 창출하는 등 스포츠가 문화·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
 - * 한국관광공사, 'K-치어리더와 함께 떠나는 한국여행' 방한 관광상품 출시
- (K-스포츠 리더십 확대) 한국은 e스포츠, 태권도 등 분야의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스포츠 아젠다를 선도하는 지위를 확고하게 자리매김
 - *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13회 중 7회 우승 ▲세계태권도연맹(WT)은 '23년 기준 국제스포츠연맹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을 보유한 단체로 집계

2 그 간 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체육 정책 성과

-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양성 및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체육 선진국 도약의 기반 마련*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 ('94년) 48.8% → ('14년) 54.8% → ('25년) 62.9%
- **(우수선수 양성체계 정비)** 국가대표 인재풀 확대, 꿈나무-청소년-후보선수-예비 국가대표 등 단계 정비 및 지원 종목 확대로 연계성 강화
- **(국제스포츠 위상)** 2018평창동계·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26년 IOC 선수위원 배출
- **(스포츠산업 성장)** 스포츠기업 창업·성장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등 체계적 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산업 성장 및 일자리 확대
* 산업 매출액 : '20년 52.9조원 → '22년 78.1조원 → '24년 84.7조원 (2026 스포츠산업조사)
- **(장애인 체육활동 증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인프라 지원('19년~, 누적 108개소 선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
* 참여율 : '20년 24.2% → '22년 26.6% → '25년 34.8% (2025 장애인생활체육조사)

□ 체육 정책 한계

- **(공정성·접근성 한계)** 연령·장애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의 한계와 시설·프로그램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정책 혜택의 공정성 문제
* '25년 청년층(주1회 20대 65.2%) 대비 청소년(10대 43.2%)·고령층(70세 이상 59.5%) 참여율 差
'25년 비장애인(주1회 62.9%) 대비 장애인(34.8%) 참여율 差 (2025 생활체육조사·장애인생활체육조사)
- ** '25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 대도시(35.4%) 대비 읍면 이하(31.5%) 이용률 低
'25년 생활체육 강좌 등 프로그램 경험률 : 대도시(25.3%) 대비 읍면 이하(20.5%) 이용률 低
- **(인권과 안전 체계 부족)**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문제 지속 발생 및 체육시설·대회의 안전사고, 위험물 관리 미흡 등 안전 체계 전반 미흡
*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비리 신고 건수 : '23년 630건 → '24년 851건 → '25년 1,536건
- ** 체육행사 안전사고 : '22년 2,539건 → '25년 5,172건(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기준)
- **(산업 지속가능성 한계)** 기업 영세성으로 성장 한계, 지역 스포츠산업 침체
* '24년 기준 전체 사업체 중 매출액 10억 미만 사업체 비중이 93.8%, 종사자 1~4인 사업체 비중이 89.9% (2026 스포츠산업조사)
- **(국제스포츠 경쟁력 한계)** 한국 국력 및 경기력 대비 스포츠 외교 역량 미흡,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비효율 발생

Ⅱ. 대한민국 스포츠 비전 및 방향

비전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

[스포츠 참여 확대] 전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25년 62.9% → '30년 65.0%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거버넌스 혁신-인재 육성-복지를 아우르는 체육계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세계 정상급 종목 비중* 6.4%** (장애인 6.0%) → '30년 7.6% (장애인 7.2%)

* 우리나라가 메달 획득한 세부종목 수 ÷ 올림픽(패럴림픽) 및 세계선수권 세부종목 수

** '22~'25년에 개최된 올림픽(하계/동계) 및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 비중의 평균

[스포츠 산업 성장] 프로스포츠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한 스포츠산업 성장기반 구축

※ 국내 스포츠시장 규모 '24년 84.7조원 → '30년 115조원

5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1. 전 국민의 체계적 스포츠활동 지원
2.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환경 조성
3. 모두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경쟁력 있는 체육계,
튼튼한 체육인 지원

4.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 재구축
5. 미래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6. 체육인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혁신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산업

7. 스포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혁신
8.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K-프로스포츠
9.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즐기는 스포츠 토토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10.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1. 장애인체육 국내·외 위상 강화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12.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13. 한국의 매력을 담은 K-스포츠유산의 활용 강화

Ⅲ. 핵심과제

[전략 1]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현황 진단 및 전략

-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공동체의 유대를 지키는 기초이지만,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대에 정체 중, 10대(43.2%) 및 70대 이상(59.5%)의 경우 쏠 연령 평균(62.9%) 대비 참여율이 더 저조. 특히 유·청소년은 WHO 신체활동 권장 수준(매일 1시간) 준수율이 14.6%에 불과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가 의료비 급증*이 국가재정 위협, 예방 중심 국민 건강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대표적 예방 투자인 생활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어** 전략의 가치를 지님

*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비전염성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의료 비용이 연간 274억달러(약 40조원)('22. WHO)

** 국민체력100 참여군 의료비(7.6만원)가 비참여군(47.9만원)보다 40만원 적음('23. 스포츠과학원), 신체활동 부족 국민의 10%를 권장 수준으로 전환 시 25년간('15~'40) 누적 GDP 증가액이 75억 캐나다달러(약 8조원)('20.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 ① 전 국민의 체계적 스포츠활동 지원

- 국민 평생 건강관리 체계 마련
-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②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조성

- 적극적인 공공스포츠시설 공급
- 시설 소득공제 활성화, 먹튀 방지 등 스포츠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스포츠 행사 개최 증가**(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가입 건수 '24년 15,450건 → '25년 17,755건) 및 **대형화**(1천명 이상 참여행사 보험가입 건수 '24년 2,997건 → '25년 3,358건)로 안전관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③ 모두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 스포츠 시설 안전 강화
-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강화

기대효과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전환으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수명 연장

1 전 국민의 체계적 스포츠활동 지원

1 국민 평생 건강관리 체계 마련

○(추진방향) 전 국민 체력 인증 활성화, 국민건강 마일리지 제공, 생활체육 AI 기반 구축 등으로 국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 구축

□ 전 국민 체력인증 활성화

- **(체력인증센터 확대)**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체력을 측정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26년 101개소→'30년 150개소)
 - 지역 스포츠과학센터와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협력으로 더 많은 생활체육인에게 전문선수만 받던 정밀* 체력 측정·운동처방 서비스 제공('27~'30년 시도별 1개소, 총 17개소)

* <달라지는 점> 최대근력 검사, 최대산소섭취량 분석, 관절가동범위 정밀 측정, 균형 분석, 3D 동작분석, 젖산분석 및 심박변이도 등을 고정밀 장비로 분석 가능

구분	거점체력인증센터	스포츠과학센터
대상	일반 국민	전문 선수
내용	건강 유지 및 증진 (인증서 발급)	경기력운동수행 능력 분석 (훈련 활용 및 부상 방지)

협업
전 국민(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체력 및 전문체력 연계 측정·처방

- **(AI 운동비서^가)** 국민체력인증센터에 축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인근 체육시설·프로그램·스포츠클럽 등 개인 맞춤 운동 컨설팅 제공하고, 운동 후 스포츠 참여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도록 전 주기 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체력정보를 입력하면 처방사가 AI를 활용하여 운동처방을 해주는 서비스인 'AI 온라인 운동코칭' 시스템 도입('26년) → 개인 맞춤형 AI 운동비서 도입('28년)

□ 운동하는 국민에게 동기 부여

- **(국민건강 마일리지)** 스포츠 참여 포인트(튼튼머니) 지급 대상자 확대('26년 8만명→'30년 120만명) 및 체력 인증 등급과 운동 기록과 비례하여 할인되는 금융상품 개발('26년)·출시('27년)
 - 스포츠활동 인증 앱 구축하여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스포츠 활동자에게도 포인트 지급('26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공공·민간앱과 연계·활성화('28년)

□ 국민 체력-보건의료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국가체력 코호트 운영)

- (근거기반 코호트* 연구) 국민 체력-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장기 추적하여 연령, 성별, 직군, 질환군별로 정밀한 정책 설계에 활용

* 동일 시점·특성을 공유한 집단(Cohort) 분석 단위 연구로, 통상 10년 이상 장기 수행

- 정책성과를 장기 추적할 수 있는 종단 체력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만성 질환의 예방정책 수단으로서 체력 증진 정책 기초자료 확보('28~'37년¹⁾, 국민체력100 참여자의 약 10%인 3~4만명 데이터 추적 및 추적조사)

□ 생활체육 현장 기반 스포츠 AX 확산

- (승강제리그 AX 시범적용) 한국형 스포츠클럽디비전인 승강제리그*를 생활체육 AX 확산의 시범적용 사업으로 활용하여, 경기 영상·활동 데이터를 수집·추적하고 AI 분석모델을 개발('27~'29년 8개 종목 우선 추진)

* 일정 기간의 경기 성적을 기준으로 팀의 승격과 강등을 결정하는 리그 운영 방식

- 경기 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AI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동작 패턴 분석, 속도·궤적·반응시간 자동 측정 등) 및 개인별 경기력 피드백·하이라이트 제공

** 데이터셋(Data set) :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경기 영상에 설명을 붙여 정리한 자료

- 리그 운영 시 생성되는 기록(대진표·경기결과·개인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생활체육 활동기록부'를 구축하여 지속적 스포츠 참여 유도('27년~'31년)
-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축적된 영상기록 데이터를 단계적 개방하여, 민간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코칭, 중계, 콘텐츠 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0년~)
- 개인 이용자 대상 AI 분석 서비스를 생활체육 참여자 전반으로 확대 제공

□ 대국민 운동 장려 캠페인 추진

- (대국민 캠페인) 국민 운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스포츠 스타 등 활용하여 대규모·지속적 홍보('28년~'31년)

*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은 年 160~240억원 대규모·장기 예산 집행

- (브랜드 리뉴얼)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신규 통합 슬로건 개발('28년) 및 일관된 BI 적용으로 홍보 효율 제고

2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방향)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특히 스포츠 참여율이 낮은 유·청소년의 평생 운동습관 형성과 노년층 건강증진을 위해 타겟층 집중 지원

□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활성화

-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유·청소년 평생 운동습관* 형성 ▲종목별 우수 인재 발굴 및 참여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27년, 36개 이상 종목별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기 운동 참여 경험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부분 운동 참여 경향('21년 서울대)

- (방과후 안전한 스포츠활동) 유·청소년의 안전한 학원 이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법상 체육교습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기존 자유업종) 해소('27년)

* ①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교습소 ②입시 체육학원 등 법령상 종목 외 교습소 등 사실상 체육 교습이 이루어지는 업장

기존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선	
문제점	체육교습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축구교실·입시학원 등의 지도자 배치 등 안전관리 어려움	개선 방안	체육교습업 정의 확대로, 유·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교습학원 안전관리 강화
체육 교습업 정의	①(종목)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②(대상)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장	⇒	①(종목) 기존 + <u>체육 계열학과 입학시험 준비와 관련된 운동</u> ②(대상) <u>18세 이하 미성년</u>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장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장)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범위 및 지원 금액 확대 추진('28년)

* (기존)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범죄피해)/만5~18세 청소년/월 10.5만원 → (개선) 기존 + 다자녀가구·탈북민·인구소멸지역 청소년/월 11.5만원(~'30년 12.4만명)

□ 청·장년층 스포츠활동 지원

- **(대학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동아리 신설* 및 대학운동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동아리 활성화** 지원('28년)으로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 대학운동부와 동일 종목 동아리 신설 지원(예: 가톨릭관동대 컬링부-컬링동아리 신설)

** 예: 실기 지도, 합동훈련, 워크숍 등 운영 시 대학운동부 평가지원사업에서 가산점 부여

- **(청년문화패스)** 청년(19~34세)이 다양한 문화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년문화패스 이용을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별 거점 스포츠클럽 발굴·육성으로 촘촘한 스포츠 보급체계 구축 및 선진형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26년 163개→'30년 250개)

- ①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지원('26년 320개→'30년 650개) ②지정스포츠클럽 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 운영 방지 ③학교 및 공공체육시설 연계 등 클럽 시설확보 지원 ④행정·운영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등(「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환 명령 2회 시 지정취소)

□ 어르신에 맞춘 스포츠 참여 길잡이

- **(어르신 스포츠강좌)** 신체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령 정도(전기 노인: 65~74세/후기노인: 75세 이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26년 75개 → '30년 150개)

- 개인운동기록 활용 개발(R&D)*(~'28년)과 연계하여 어르신 프로그램 사업 효과 측정 등 환류하여 효과 제고, 단계적 확대 개편('29년~)

* 개인운동기록 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 AX 활용을 위한 지능화, 정책적 실현을 위한 서비스 실증 등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

- **(어르신용 뉴스포츠 개발)** 정식 종목의 규칙·장비·속도를 어르신에 맞게 간소화한 안전·흥미 중심의 변형 스포츠 개발·보급('27년 5개 → '30년 10개)

*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복지부 소관 시설과 협력, 시범 활용('27년)

2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환경 조성

1 적극적인 공공스포츠시설 공급

- (추진방향) 공공스포츠시설의 공급 확대 및 유휴 시설 활용성 제고를 통해 시설 접근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국민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 (국민체육센터) 원하는 때에 생활권 어디에서나 스포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체육시설 확보('30년까지 110개소)

* (영국·일본) 인구 3만명 당 수영장 1개소 ↔ (우리나라) 인구 9만명 당 수영장 1개소

-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주거지·도심 인근 시설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량형** 국민체육센터 개발 지원 및 국비 지원의 적정 수준 확보

** ▲ (기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약 250억원 ▲ (경량형) 약 100~150억원

- (사용자친화형 개보수) 야외 체육시설 그늘막 지붕 설치로 폭염 등 기후 변화 대응, 경기장 좌석·화장실 개선 등 이용자 체감형 편의시설 개선 추진
- 노후 월드컵경기장(10개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27~)

- (노후 육상경기장 재탄생) 지역의 생활중심권에 위치한 노후 육상경기장을 스포츠·문화 복합시설로 리모델링('26년~'30년 매년 2개소, 총 10개소)

- 주경기장 내 관람·본부석을 수직·수평 증축하여 스포츠·문화센터로 조성
- 경기장 주변은 파크골프장, 피클볼 코트, 야외 스포츠·놀이공간 등 조성



- (스포츠가치센터)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및 스포츠 가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스포츠가치센터 전국 확대('26년 1개소 → '30년 8개소)

* 현재 진주센터 1개소 운영 중('23.11월~), 원주센터 건립 중('29년 완공^{예정})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관리 매니저 인건비·손해보험료 지원 상향, 시설 개보수 인센티브 제공 등 시설 개방 부담 해소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 확대('26년 40억원 431개교→'30년 5,900개교)

- 초·중·고 중심 개방을 국공립대학까지 점진 확대('28년~/교육부 협의)

2 스포츠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스포츠시설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 마련 등으로 스포츠시설 이용자 보호 및 산업 전반의 활성화 기여

□ 스포츠시설 소득공제 활성화

- (국민체감도 제고) 총급여 7천만원이 초과하는 직장인도 스포츠시설 소득 공제 적용('27.1.1.~), 공제 적용 시설('26년 1만 7천여개) 등록 확대로 국민의 소득공제 체감 혜택 제고('26년 등록률 약 50% → '27년 60%)

▶ 참고 · 현행 스포츠시설 소득공제 제도 개요 ('25.7월~)

- (대상시설)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17,327개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단, 강습비는 금액의 절반)
- (공제율/공제한도*)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7천만원 초과시 미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00만원('27.1.1.부터 개정안 적용)

□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 헬스장·요가·필라테스장 등에서 할인으로 회원모집 후 선납 이용료를 받고 잠적, 폐업하는 행위
- (법·제도 개선) ①자유업인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으로 편입('27년)
②기존 체육시설업 대상으로 보증보험 도입('27년)
- (보험상품 등 활성화) ①영세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저렴한 보증보험상품 개발·보급('28년) ②‘안심결제서비스’* 등 제도 도입 등 병행 검토('28년)
- * 소비자의 결제 대금(선납 이용료)을 사업자가 즉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보관하고 서비스가 정상 제공된 범위만큼만 단계적으로 정산되도록 하는 민간 결제·보증 서비스

□ 공공체육시설 안정적 이용환경 조성 및 운영 효율화

- (시설 운영 매뉴얼 제작)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전국 배포('26년)
- * ①공공체육시설 이용 원칙 ②사용 방법 및 예약시스템 운영 방안 ③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④공공체육시설 이용 홍보 ⑤이용자 관리 방법 등
-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제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컨설팅을 전국 공공체육시설로 단계적 확대, 이용자 만족도 및 운영 효율성 제고('27년)

3 모두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1 스포츠시설 안전 강화

- (추진방향) 프로야구 흥행, 전국적인 마라톤 행사 개최 증가 등 다중운집인파 사고위험과 시설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안전관리 강화

□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사·도 안전협의체 운영) 문체부-시설관리주체(지자체) 간 ‘안전협의체’ 구성, 신속한 안전 지침 공유 및 대규모 체육시설 대상 안전 점검 등 강화(‘26년)
 - (안전관리 표준운영협약 모델)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관리주체와 운영주체 간 권한·역할 명확화 및 ‘표준운영협약’ 모델 마련(‘26년)
- (점검 책임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 지표 신설 등 안전 성과관리체계 구축(‘28년)
 - * 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휴장 기간 의무화 검토
- (스포츠시설 AI 기반 구축)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지자체 및 민간체육시설업자 이용)’, ‘체육시설알리미(일반인 이용)’ 등 시설정보 플랫폼 AX(‘27년~)
 - (정보관리) 실시간 현장 데이터(GPS·카메라) 동기화 등 정보관리 효율성 제고, ‘체육시설알리미’와 연계하여 대국민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서비스 제공
 - (위험 예측) AI 기반 체육시설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예측모델* 개발
 - * 고위험시설 자동 식별 및 담당자에 경보 및 시설지자체 주요 위험 요인 보고서 자동 생성 등

□ 스포츠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안전관리 적정성 검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의 법적 근거 마련(‘28년)
- (스포츠시설 유형별 범용 가이드 마련)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가이드 개발(스포츠시설별 운영) 및 보급(‘27년)

2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방향) 국민의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행사 개최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스포츠행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강화

- (법령 개선) 1천명 이상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통보, 보완 등 절차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신설('26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지자체장에 긴급 안전 점검 및 행사 중단 권고 등 권한 부여,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시스템 구축) 개최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 가능한 체육행사안전관리시스템 구축('26년~), AI·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하여 지능형 안전관리체계로 단계적 고도화('29년)

▶참고 · 체육행사안전관리시스템 개요

- (이용 대상) 체육행사 운영단체(종목·지역·장애인 체육단체 등) 및 관리단체(지자체 등)
- (주요 기능) ▲체육행사 정보 등록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및 검토, ▲법정 의무교육 이수 현황 점검, ▲종목 및 규모별 체육행사 통계 조회, ▲중대사고 정보 축적분석·재발 방지 활용 등

- (안전관리 점검 등) 스포츠행사 진행 단계별 점검 및 컨설팅 제공('26년)
 - (행사 개최 전) 1천명 이상 규모 스포츠행사 개최자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과정 운영,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사전 현장답사 및 컨설팅 제공
 - (행사 운영 중)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적정성·위험요인 식별 점검 및 차기 행사의 안전관리 보강 방안 제시
- (응급의료 지원) 스포츠행사 종목·규모별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및 응급환자 이송(평시 응급의료인력 풀·이송기관 네트워크 관리) 등 응급 대응 지원('27년)
 - * 행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일반 행사) 및 강화형(취약 고위험)으로 구분, 차등 지원 (강화형 → 응급차량 배치 비용 전액 지원)

□ 종목별 대회 안전 강화

- (안전매뉴얼 제작) 마라톤·복싱 등 다중 운집·위험 종목 대상 대회 운영 매뉴얼 제작(마라톤 ~'26.8월/그 외 16개 종목 ~12월), 타 종목 순차 확대('27)

[전략 2]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현황 진단 및 전략

- 엘리트 스포츠는 스포노믹스(Sponomics) 생태계*를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국제대회에서 스타선수의 탄생→대중 관심 제고→인재 유입→생활체육인 참여 증대→관련 용품·서비스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호주 엘리트 스포츠 생태계는 연 160억 호주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지속적 가치를 국가 환원 ('24.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Clearinghouse for Sport)

** (예: 펜싱) 2020도쿄올림픽에서 메달 5개 획득 성과, 국민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19년 대비 '25년 등록 체육인은 약 3배 증가('19년 1,717명 → '25년 5,146명)하는 등 실제 참여 저변이 크게 성장, 펜싱 대중화 본격화

- 다만, 대중의 관심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스포츠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국민 소통·홍보가 전제조건

①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 재구축

- ➔ · 지속가능한 체육계를 위한 혁신 완수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 국가 스포츠과학·데이터 허브 구축

② 미래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 ➔ · 학교 안·밖의 균형 있는 체육인재 육성
- 지도자·심판도 함께 성장하는 선진 시스템 구축

- 은퇴 이후 전문체육인의 불안정한 삶은 장기적으로 인재 유입을 제한하므로 체육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체육인 복지정책 인프라 필요

③ 체육인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를 보호하는 안전망 확충
- 폭력 없는 건강한 체육계 만들기

기대효과

- 국가 스포츠 경쟁력의 구조적 강화로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전문선수 경기력 제고 및 국제대회 경쟁력 유지
- 체육인이 현역 활동 중과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 재구축

1 지속가능한 체육계를 위한 혁신 완수

○(추진방향) 대한체육회 감사역량 확대와 체육단체 거버넌스 혁신 완수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대한체육회 감사역량 확대

- (상임감사 도입) 외부에서 선임된 상근 감사위원이 대한체육회 업무 전반의 자율적·독립적 감사 수행 및 기관장 도덕적 해이 견제('27년)
 - * <현황> 비상임감사 3명(행정 2, 회계 1)이 정기감사(매년 1월) 및 사후 점검 중심으로 운영
- (감사기구 확대) 감사기구를 확대하여 정기감사 주기 단축(약 5년→2년 3개월) 및 범위 확대(정회원→정·준회원), 시군구체육회·시도종목단체도 특정감사*('27년~)
 - * 연간 최대 144개 단체 감사(회원종목 83, 시도 17, 시군구 228, 시도종목 1,193/총 1,521개 중 약 10%)

□ 체육단체 거버넌스 혁신 완수

- (선거제도 개선) 선거 대표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 및 온라인 투표 도입('26.8월), 총 임기 제한* 추진('27년)
 - * <현황> 대한체육회 임원 2회 이상 연임 금지('26.4월 정관 개정)
 - 회원단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규정 개정 추진(새로운 선출 방식의 적용을 위해 회장 궐위 시 현행 60일인 선출 기한 예외 허용 등)
 - * 대한축구협회는 연내 선거제도 개편 추진 및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한 차기 회장 선출
- (징계 중립성 확보)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시 외부 추천 제도화 전면 확대 적용('26년/대한체육회는 '25년부터 적용) 및 회원단체 임원 징계 관할을 상위기관(대한체육회)으로 상향('26.6월 시행)
 - * 단,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수준(국가인권위원회, 체육학회 등 외부 6개 기관 추천하여 구성)으로 엄격하게 투명성 강화
- (임원 연임 심의 강화) 거버넌스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 평가지표 강화(~'26년), 연임 제한 관련 체육회 협의 추진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추진방향) 설상 에어매트, 국제스케이트장, 벨로드롬 및 테니스장, 동계스포츠과학센터, 유소년 콤플렉스 등 국제 수준의 경기·훈련 시설 및 지원 거점 조성으로 전문선수 경쟁력 강화

□ 우수선수를 위한 전문시설 고도화

- (설상종목) 2026 밀라노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키·스노보드 종목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공중 동작 시설(에어매트) 조성하여 훈련 부담 완화 및 유망주 발굴 확대('26~'27년/슬로프 등 3개 시설)
- (국제스케이트장) 상시 훈련·국제대회 개최가능한 시설 조성('27년~)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09년)에 따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 예정('27년 부지선정예정)
- (벨로드롬) 국제규격 경기장 확보 및 공연장(4천여명 수용)·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26~'29년^{예상}/연면적 1.7만㎡, 4층/서울 올림픽공원)
* <현황> 실외 6,000석, 경기장 전용 → <리모델링> 실내 2,800석, 다목적 시설
- (테니스장) 전면 리모델링을 통한 국내 유일 국제테니스대회(WTA 코리아 오픈) 개최지로서 위상 제고 및 공연장 활용('27~'31년^{예상})
* <현황> 실외 9,660석, 개방형 경기장 전용 → <리모델링> 실내 1만여석, 개폐식 다목적 시설
- (국제바둑연수원) AI 바둑 연구·훈련, 전용 경기장과 연계한 국제 교류, 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 조성('26~'29년^{예상}/연면적 8천㎡, 연수원·경기장 2개동/영암)

▶참고 · 주요 경기·훈련시설 현황

- (국가대표 선수촌) 진천, 태릉, 태백, 이천(장애인선수) 등 4개소
- (종목별 주요 경기·훈련시설) ▲코리아풋볼파크(천안) ▲김천실내수영장 ▲창원국제사격장 ▲진호국제양궁장(예천)·김수녕양궁장(청주) ▲대구스타디움 육상경기장 등

□ 전문선수 지원 거점 조성

-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국가대표뿐 아니라 지역 선수에게도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는 동계 전용 훈련·연구시설 건립('23~'29년^{예상}/연면적 5만㎡, 1층/평창)
* <현황> 스포츠과학원, 지역스포츠과학센터(15개소) 등 통해 지원('26년 전체 800명 중 동계 132명)
- (유소년 전용) 국가대표 이하 유망주 선수도 국가대표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건립('23~'28년/연면적 1.1만㎡, 4층/남원)

3 국가 스포츠과학 · 데이터 허브 구축

○(추진방향)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수준을 높이고,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전문-생활-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전환, 데이터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스포츠과학 지원 선진화

- (지원 수준 고도화) AI 국가대표 경기력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종목별·유형별(건강, 체력, 경기이력 등)로 분절된 국가대표 선수데이터를 종합 관리·분석, 경기력 향상 지원(체력, 부상 예방, 회복, 심리 등) 고도화('27년~'29년)
 - * 사례 : 日 하이퍼포먼스스포츠센터 중심으로 AI 기반 선수 강화 전략 수립(2032 올림픽 목표)
- (지원 범위 확대) 국가대표 선수에 편중되었던 스포츠과학 지원 범위를 단계적 확대하여 과학과 통계에 근거한 선수 발굴 및 육성 체계 완성
 - * ▲국가대표선수 지원 강화('26년 55 종목/800명 → '27년 57 종목/850명) ▲미래국가대표 선수(예비국가대표·후보·청소년·꿈나무선수) 지원 확대('26년 2,000명 → 30년 2,500명)
-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현장(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기업, 프로구단 등)·학계(한국체육대학교 등)·연구기관(스포츠과학원)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연계를 강화하여 스포츠 생태계의 선순환 촉진
 - * <예시> ▲학·연 간 스포츠 과학 기반 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훈련·지도 현장 실증
▲대학-프로구단·스포츠기업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 스포츠 분야 데이터 허브 구축

- (컨트롤타워)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스포츠 데이터 수집·축적·정제·분석·유통·상품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제도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일반 국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보한 국민 체력데이터를 활용, 국민 체력-보건의료 연계 코호트 연구('27년~) 및 데이터 민간 개방('28년)
 - (국가대표) 과학원이 축적해 온 국가대표 체력·심리·기술·성과 등 고품질 데이터를 스포츠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하기 위한 공유 체계 조성('27년~)
 -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 데이터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한 질서* 수립
- * ▲개별 리그·구단 생성·보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축적·활용의 윤리·보안 체계 구축
▲선수·구단 권리보호, 데이터 공정 접근 원칙 수립 등 가이드라인 제시
- ** 사례 : 英 'Football DataCo'은 EPL 경기 데이터의 공식 라이선스·권리 관리를 담당, 통계·일정 데이터 등 집적과 미디어서비스 업체 대상 데이터 유통 수행, 수익은 리그와 분배

2 미래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1 학교 안·밖의 균형 있는 체육인재 육성

○(추진방향) 학생선수가 마음껏 운동하고 도전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균형 있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학생선수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기반 조성

- (체육계 학교) 학교에서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시설 개선('28년)
- (학교운동부·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창단·훈련지원 확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선수의 성장경로 다양화*('26년)
 - * ① 꿈나무·청소년대표 선발 연계 트랙 마련 ② 프로·실업팀 연계 진로 지원 등
- (이적제한 개선) 선수의 팀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 관련 종목별 전수조사('26년) 및 개선('27년)
- (원거리 통학 지원)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의 안정적 훈련·학습 여건 조성
 - (스포츠클럽) 기숙사 이용 기준의 합리화*로 사각지대 완화
 - * 클럽 소재지와 동일한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원거리(ex. 실제 통근 1시간 이상)라면 학생선수가 클럽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기숙사) 지역 활성화 및 학생선수 생활·안전관리·인권 교육 표준화를 위한 권역별 공공기숙사 설립·운영 지원하여 운동·학업 병행 지원('28년)

□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역량 강화 지원

- (체육특기자 평가개선) 개인의 실제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종목 평가방식 개선 논의, 선수 역량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문화 조성
 - * <문제점> 팀 실적 중심 문화는 ▲단체합숙 강제 ▲개별 선수 기량 정체 ▲다수 동점자 발생으로 정성 평가 확대 시 입시비리 논란 등의 원인으로 작용
- (대입반영 협의) 체육특기자 평가 개선안을 기반으로 대학,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대입 반영 여부·시기 등 검토
- (이중 진로 지원)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 지원(대면 보충수업 지원 확대, 온라인 보충수업 고도화 등) ▲운동 중단 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지원 확대

2 지도자 · 심판도 함께 성장하는 선진 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지도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심판의 역량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해 스포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 동반 성장하는 선진 시스템 구축

□ 지도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 개설) 급변하는 글로벌 스포츠과학과 데이터 기반 전술 변화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 기관 마련('28년)
 - 해외 명장 초청, 해외 트레이닝센터 파견 연수 등 국제교류 확대('28년)
- (국가대표 감독 선발 개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26.2.)을 반영, '국가대표 선발 업무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 종목단체별로 상이했던 감독 채용 기준·절차를, ▲기준·절차 표준화 ▲자격·경력·윤리성 등 평가 기준 구체화하여 자의적 평가 방지
 - * 국가대표 자격·경력 검증체계 강화, 공정 채용 기준 적용(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관리 강화)
- (지도자 교육체계 정비) 지도자 교육 강화 및 엄격한 자격기준 도입
 - (교육 강화) ▲실무 중심으로 검정 연수·보수교육 개편('30년) ▲지도자 재교육 대상을 현업지도자에서 전체로 확대('28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자격기준 강화) ▲윤리교육 등 재교육 미이수 시 지도자 자격정지('28년)

□ 국제경쟁력을 갖춘 심판 육성

- (인력양성) 심판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아마추어→위촉→상임→국제)으로 중장기적으로 국제대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심판 양성
 - (상임심판) 스포츠비리 근절 및 판정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임심판 확대('26년 25개 종목/137명 → '27년 586명), 해외 심판 초청 특별교육('27년 5개 종목) 및 우수 심판 연수 지원 신설('27년 6개 종목)
- (첨단기술 활용) 판정의 품질 강화를 위해 AI, ICT 활용 판정보조장비 등 기술 지원(채점·계측·대련 장비, 비디오판독시스템 등) 강화('27년~/'25개 종목)
- (네트워크 확장) 국제기구(FIFA, AFC 등) 심판조직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제심판 워크숍(해외 강사 초청 강연 등) 정기 개최, 발전방안 논의

3 체육인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를 보호하는 안전망 확충

○(추진방향) 체육인의 보편적 복지 점진적 확대, 사회보험 보장 확대로 체육인 지위와 권리 보장, 전문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 체육인 보편적 복지 점진적 확대

- (소득안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28년)
- (체육인 공제사업) 불안정한 체육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손해공제 운영→적립형공제 단계별 추진)(‘27년)
 - * 손해공제 : 보험과 같이 사고·손해 발생 시 구성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상품
- (보편적 복지 로드맵 마련) 기존 성과(메달) 보상 중심에서 탈피, 공공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이 경력단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 보장(‘29년)
 - * (‘27년) 기본연구 수행 → (‘28년)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29년) 제도 단계적 추진

□ 체육인 사회보험 보장 확대

-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경우(프리랜서인 프로선수·지도자, 비전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등)에도 **고용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방안*** 마련(‘27년)
 - * ▲ 적용 대상 ▲ 적용 사업 ▲ 적용 방식(당연/임의 가입) ▲ 보험료율 등 세부 사항 마련
- (산재보험) 부상 등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인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추진(‘28년)

□ 체육인복지 시책 수립 및 정책기능 강화

-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 체육인이 국민 체육진흥과 행복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호 종합계획’ 수립(체육인복지법 제5조)(‘27년)

2 폭력 없는 건강한 체육계 만들기

- (추진방향)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신고자 보호, 조사 및 징계 실효성 강화, 엄중 처벌을 통해 폭력 없는 윤리적 체육계 구현

□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인권보호관 확충)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학교 운동부 등에 파견하는 **인권보호관 현장점검 확대**(‘26년 400회 → ’30년 2,000회)
- (폭력근절 캠페인) 홍보 캠페인·현장 프로그램으로 선제적 홍보 강화(‘27년)
 - <인지> 사례 중심 시각 콘텐츠 배포, <체험> 체육 현장 내 체험형 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 <실천> 신고 장려 맞춤형 메시지 발송

□ 신고자 익명성 보장 강화

- (특별 포괄조사) 신고인 신원이 특정되지 않게 관련 지역·기관·유사 종목 및 단체 등을 포괄한 광범위 조사 신설 및 특별조사팀 구성(‘26년)
- (콜센터) 실시간 상담 데이터 추적, 신고·상담 유형 자동 분류 및 조치 결과 등 통계 관리 체계화를 위한 콜센터시스템(CTI) 구축(‘27년)

□ 조사 및 징계 실효성 확보

- (이행력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개시 시 체육단체는 **14일 이내** 자료 제출,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상향**(500만원→1천만원) 및 징계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신설(‘26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숨방망이 처벌 방지) 조사 개시 시 징계 절차 중단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의 자의적 숨방망이 처벌 방지(‘26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스포츠 폭력 시 불이익 강화

- (지도자) 선수 대상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형 확정일부**부터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신설(‘26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선수) 상해·폭행 등 범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집행으로부터 10년** 까지 전문체육선수 등의 대회출전 제한(‘26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산업

현황 진단 및 전략

- 국내 스포츠산업 연평균('20~'24) 성장률은 12.5%로 글로벌 연평균(4.6%)의 2.7배에 이르나, 개별 기업은 여전히 구조적 영세성(매출 10억 미만 93.8%)으로 성장에 한계

* 세계 스포츠시장은 '24년 전년 대비(1조 6,195억달러/2,295조원) 3.9% 성장한 2,387조원(Plunkett Research(2024~2026))

① 스포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혁신



- 스포츠기업 성장 하이패스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 스포츠산업의 연구개발 및 AX 지원 등으로 기초역량 강화
- 대형 돔구장 건설, 지역 산업 거점 조성 등 K-콘텐츠·관광산업과 연계 강화

-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신뢰는 팬 기반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나, 판정 논란·부정행위·암표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

- 신뢰 저하는 관람 수요 감소 및 프로산업 전반의 성장 정체로 연결될 우려

②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K-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분야 심판 역량 고도화 및 부정행위 방지로 공정성 강화
- 프로스포츠 분야 구단 재정자립 강화 등 자생력 강화

-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약 21.7조)이 합법 시장의 약 4배에 이르는 규모('25년 사감위)로, 스포츠 생태계의 건전성과 신뢰를 저해

③ 밝은 곳에서堂堂하게 즐기는 스포츠토토



- 스포츠토토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건전한 베팅문화 확산

기대효과

- 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스포츠산업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
- 프로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통한 팬 신뢰 회복 및 관람 수요 확대
- 합법 스포츠베팅시장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 및 건전한 베팅문화 정착

1 스포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혁신

1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추진방향) 기업단계별 성장 지원, 유망 혁신 제품개발, 수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스포츠기업 성장 하이패스 구축

○ (기업 지속 성장 지원) 스포츠기업의 성장단계별 촘촘한 성장사다리 (시장진입 → 안정화·도약 → 확대·고도화) 구축으로 지속적인 성장 지원

* ('26년) 261개 기업 → ('30년) 375개 기업

○ (금융지원 다양화) 담보력이 낮지만 혁신기술을 보유한 영세업체도 체육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 도입('28년)

* '26년 관계기관 협의 → '27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28년 도입

- (펀드 다각화) 테크 펀드 및 성장형 M&A 펀드 등 새로운 정책펀드 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IP 축적을 유도하는 혁신 성장 지원

* 스포츠 테크 펀드('26년~'33년), 성장형 M&A 펀드('28년~'35년)

○ (전략 품목 지원) 12대 신산업(AI, 모빌리티, 로봇틱스 등) 기술 접목 제품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27년 8개사)

- (실증 지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에 스포츠테크 기업 상품 '시범 도입' 구입비 지원, 테스트베드로 활용('28년~)

* 사례 : AI 기반 스윙분석 등 실시간 피드백 기능을 결합한 골프 훈련 솔루션 사업화

□ 수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스포츠기업 육성

○ (해외진출 지원) 스포츠기업 맞춤형 지원(맞춤형 컨설팅, 수출 물류비 신규 지원 등) 및 해외 전시 참가 지원 확대('26년 50개사 → '30년 70개사)

○ (해외 공공기관 연계 지원) 해외 스포츠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스포츠기업 대상 해외 바이어 상담·제품 시연회 확대('26년 일본 → 일본·프랑스·베트남)

*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 스포츠기관(GSIC), 대만 아시아 스포츠테크 네트워크(ASPN), 호주 스포츠기술 산업 협력 네트워크(ASTN) 등

2 스포츠산업의 기초역량 강화

○(추진방향) 연구개발, 기업 기술도입 지원, 산업통계 고도화 등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토대 강화

□ 스포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과기부 협의)

- (국민 체감형)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 수요가 큰 스포츠 기술개발
 -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 다양한 형태의 운동기록 표준화, <운동데이터 수집 → AI 동작분석 → 맞춤형 운동 추천> 기술개발('26년 57억원/~'28년)
 - (공정경쟁) 프로·입시·국가시험 등 간편 도핑방지 기술개발('26년 8억원/~'28년)
 - * ①검사과정이 간편한 시료(타액, 땀) 채취 ②저비용 간편키트 개발 ③결과 도출시간 감축 등
- (산업 성장 견인형) 스마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형 핵심기술 개발
 - (시장 선도형 제품·장비) 파급력과 시장성이 큰 종목의 제품·장비 (활·클럽 등) 설계-시제품-실사용 검증 연계 지원(6~8종)('28~'32년)
 - (스마트 시설·시스템) 경기·훈련 데이터 수집·분석, 원격 코칭 시스템 등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 스포츠시설·시스템 패키지 개발('28~'32년)
 - (안전·취약계층 기술) 장애인·고령자 등 대상 안전 웨어러블 기기, 체육시설 안전 관제 등 실사용형 안전 기술개발(2종)('28~'32년)

□ 스포츠기업 AI 전환지원

- (AI 활용 기업혁신) 업력 5년 이상 기업 대상 AI 기반 업무 효율화와 사업고도화 등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 지원('28년)
 - * 경영·제작·마케팅·품질관리 등 영역별 AI 솔루션 도입, 품질 평가 등 지원
- (AI 특화 창업기업 육성) 기존 스포츠기업 창업지원센터 중 AI 특화 센터를 선정(10개소 중 2개소 선정)하여 AI 보육 프로그램 편성('26년)

□ 스포츠산업 통계 고도화

- (산업조사 내실화) 최신 스포츠산업 현황·추이 정보 제공(매년→매분기) 및 프로 스포츠(야구, 축구 등 5개 종목) 산업조사를 위한 구성·분류체계 기초조사('27년)
- (프로스포츠 데이터 활용) ①프로 데이터 공유 플랫폼(「프로스포츠 정보광장」) 개편('27년) ②프로 관람객 성향 조사·대국민 인식도 결과 공개('27년)

3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경기장 밖에서도 스포츠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접 분야인 K-콘텐츠 및 관광과의 연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 시장 활성화

□ K-스포츠 · K-팝 팬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 (돔구장 신축) 대규모 스포츠대회·경기, 공연 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시 운영 가능한 대형(5만명 이상 수용)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신축
 - 랜드마크화 가능한 외관, K-콘텐츠 특화 콘셉트, 경기장-공연장 간 신속 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 등 아시아 최고 돔구장 목표('26~'34년^{준공목표})
- (K-스포츠 브랜드) 'K-스포츠'라는 브랜드의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콘텐츠를 K-스타 선수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
 - (정밀 타겟팅) K-스포츠 관심층 대상 SNS 브랜드 광고 제작 및 확산, 현지 유력 스포츠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K-스포츠 방한 관광 등 추진

□ 경륜 · 경정장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

- (광명 경륜장) 소수만 이용했던 경륜장을 시니어 및 가족 특화 복합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
 - (스포츠공원화) 야외공간에 BMX 자전거 트랙, 배드민턴장, 풋살장 (축구장) 등 조성하여 경륜장 일대를 자전거 중심 스포츠공원으로 전환
 - * 관할관청 인허가(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 절차 필요
 - (스포츠복합센터) 수영장, 운동처방실, 재활치료실 등 실내 체육시설 조성
 - * 현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상 '경륜장 및 부대시설'에 한해 입지가 가능함에 따라 광명시 소유 부지 분리 후 설치 가능(사업 주체 : 지자체)
 - (미사 경정장) 미사 경정장을 수상레저스포츠 중심 체험 및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여 여가·체험을 결합한 관광 자산으로 발전
 - (수상 레저) 경정 VR, 조정, 카약, 인공급류시설 등 레포츠 시설 마련
 - (체육공원화) 대규모 파크골프장 및 수변 공간을 따라 순환형 산책로 조성(워밍업장 활용), 체류형 정원 조성(미사경정공원 개선)
- ※ (추진 일정) 경륜·경정장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26),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27),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28~'30)

2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K-프로스포츠

1 프로스포츠 공정성 강화

○(추진방향) 심판 역량 고도화 및 부정행위 방지 환경을 조성해 판정 시비와 불공정한 오심 없는 공정한 프로스포츠 구현, 프로스포츠 팬 신뢰 제고

□ 공정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프로축구 심판 역량 고도화

- (심판 평가관 역량 강화) 선발 전형 난이도 강화 및 평가관 역량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수시 평가→역량 검증→자격 갱신 또는 배정정지·강등)(‘27년)
- (심판위원회 개편) 심판위원회 단독 의사결정으로 인한 오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판조직 개편(심판실 설치, 심판실-위원회 간 업무·책임분장)(‘27년)
 - * <현행> 위원회-심판 배정·운영·징계 수행 <개편>심판실-배정·교육 / 위원회-운영·징계
 - 심판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력 위주 경기 배정 및 아마추어 경기에 균등 배정하여 다수에게 심판경험 부여함으로써 프로심판 후보군 육성
- (국제심판 육성 확대) AFC, FIFA 인증 코스를 통한 국제심판 엘리트 양성체계* 구축(‘26년)하여 월드컵 등 국제심판 규모 유지(현 30명)
 - * S코스(1~2급, 프로 대상 AFC 강사 초빙교육) → AFC 아카데미 수료→ FIFA 패널 진입
- (첨단기술 기반 판정 분석 시스템 도입) AI와 영상 기반의 분석 시스템 단계적 도입하여 2단계 분석체계(전산 심판평가시스템 → 평가회의) 정착(‘30년)

□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환경 조성

- (부정행위 방지 교육) 프로스포츠 선수, 지도자 등 종사자 대상 부정행위(승부조작, 불법스포츠도박, 각종 일탈행위(음주운전, 폭력, 병역면탈, 차별 등)) 예방 교육
 - * 종목별 종사자 교육 이수 결과를 주최단체지원금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 담보(‘26년)
- (스포츠 암표 근절) 스포츠 입장권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부정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 등(‘26년 시행)(국민체육진흥법)

2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 (추진방향) 프로스포츠 관람 2천만 시대가 열리고, 프로스포츠가 국민의 주요 여가 활동이 되었으나,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팬 저변 확대, 구단 수익구조 개선과 지원체계 개편 필요

□ 프로스포츠 팬 저변 확대

- (인프라 개선) ①경기장 관람환경(좌석·화장실·식음시설) 개선으로 가족·유아 동반 시 편의 제고('26년) ②스마트 출입, 실시간 경기 정보 제공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산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스포츠 관람여건 조성('26년)
- (경기장 운영 역량 강화) 구단 경기장 운영권(경기장 시설관리, 부대시설 등) 확대*, 잔디 관리 지원**(장비 확보 지원) 등 팬이 만족하는 경기장 환경 조성
 - * 공공체육시설 소유주인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설 중장기 사용·운용 협약 추진
 - ** 천연잔디 관리 개선을 위해 연차별 지원 추진('27년 10억→'28~30년 총 117억)
- (팬 마케팅) ①프로종목 간 팬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27년) ②맞춤형 팬서비스 강화(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 재방문 보상 프로그램 등)로 신규 팬 유입 및 재방문 확대('26년)

□ 프로스포츠 구단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입장권 가치 제고) 특화좌석 확대('27년~), 종목·경기별 탄력요금제 도입('28년) 및 타겟 마케팅 고도화 등 수익 창출 다양화
 - * NBA, MLB 등 리그는 경기등급·요일·상대팀에 따라 가격 차등, 수요에 맞춘 수익 극대화
 - ** 탄력요금제 기초연구('27년), 종목별 탄력요금제 개발 및 적용('28년)
- (인재 양성) 프로스포츠 경기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자·선수·구단 실무 인력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 * 구단 실무 인력 해외선진리그 연수('26년), 스포츠 지도자·심판 선진리그 견학·연수 프로그램 추진 등('26년 축구종목 시범 운영, '27년 종목 확대)
- (주최단체 지원금 지원체계 개선) 단년도·소규모 사업 중심의 사업을 중장기·대규모 사업*으로 확장 및 사업구조 개편 달성도 성과 평가('28년)
 - * 예: 유소년 선수의 신체 및 운동 기록 데이터 수집·활용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등

3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즐기는 스포츠 토토

1 스포츠토토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방향)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강화하여 불법시장 우위의 시장 구조를 전환하고 건전한 스포츠 베팅 생태계 조성

* 불법스포츠도박시장 규모 : 21조7,162억원('25년, 사감위), 합법시장의 약 4배 규모

□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

○ (발매시간 확대) 월드컵 등 메가이벤트 경기 대상 한시적 발매시간 확대 → 심야 및 새벽시간(유럽 축구 개최 시간) 온라인 베팅 등 단계적 확대 검토

* (현행) 8:00~23:00 → ('26년 월드컵 한국경기) 7:00~23:00 → ('27년~) 수요 반영한 단계적 확대

○ (모바일 도입) 모바일 공식서비스로 실명구매 확대, 실시간 베팅과 연계하여 신규고객 창출 및 관람문화 활성화 기여('27년)

* 경륜경정(모바일 허용) 온라인 매출(실명구매) 비중 44.2%, 체육진흥투표권(PC기반) 20.1%

○ (실시간 베팅) 경기 관람 또는 경기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 발매 상품 단계적 도입(국내경기 우선 적용 등)('28년)

* 해외 합법스포츠베팅(영국 Bet365, 싱가포르 pools 등) 및 불법시장에서 실시간 발매 보편화

○ (발행종목 확대) 신규 프로리그(당구, 탁구, 핸드볼) 출범 및 e스포츠 정식종목 채택(AG) 등 환경변화 및 구매자 수요 반영하여 발행종목 확대(~'28년)

* 현행 스포츠토토 발행종목(5개) : 축구·농구('01), 골프·야구('04), 배구('06)

○ (환급률 개선) 타 사행산업 및 불법시장 대비 낮은 환급률(약 64%)* 개선을 위한 적정 환급률 도출(환급률-매출-수익 상관관계 분석), 점진적 상향('27년)

* 경륜·경정 72%, 경마 73%, 카지노 75% / 불법스포츠도박 90% 내외

○ (구매한도 상향)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맞추어 1인당 구매 상한액 현실화(회차당 10만원→20만원) 추진('27년)(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 국내총생산(GDP) ('01년) 733조원 → ('24년) 2,549조원으로 약 3.5배 증가한 반면, 스포츠 토토 구매상한액은 최초 발매('01년) 이후 23년간 10만원으로 유지

2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및 건전한 베팅문화 확산

- (추진방향) 불법시장 축소를 위하여 실시간 탐지 및 신속한 차단 제도화, 제재 강화, 신고포상 확대 등을 통하여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베팅문화 확산을 위한 대응도 병행

* <불법사이트 신고·모니터링 현황(공단)> '21 3.5만건→'22 5.1만건→'23 5.4만건→'24 5.9만건→'25 2.1만건

□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 강화

- (실시간 탐지) AI기반 불법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8년)
*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실시간 탐지·채증, 수사·차단 심의의뢰 자동화(KAIST 협업)
- (신속차단)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심의·차단기간 단축('26년)
*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차단 소요기간(평균) : ('22) 68.3일 ('23) 141.3일 ('24) 140일
-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의 차단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정보도 포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6.2.19)
- (제재강화) 범죄수익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불법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 제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 검토('28년)
*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자 지정 등을 규정한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24.9.11) 및 계류 중
- (신고포상금)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향(현행 최대 2억원→'28년 5억원)(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건전 베팅문화 확산

- (홍보 확대) 스포츠포토의 공익적 운영과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용지 등에 문구 삽입, 캠페인 등 추진
* 현행 슬로건 : “새로운 응원 이름, 스포츠 포토”
- (이용자 보호) 판매 한도 초과 방지 등 합법 판매를 위해 사업장 암행 점검 강화 및 판매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상향(현행 1백만원→'30년 3백만원)

[전략 4]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현황 진단 및 전략

- (생활체육 참여)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 미흡, 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정체*
 -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1) 20.2%, ('22) 26.6%, ('23) 33.9%, ('24) 35.2%, ('25) 34.8%
 - 대부분의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대해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음(71.5%)
 -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의 상당수(33.9%)는 체육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도 대부분 산책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69.8%) 위주임
 - * 출처 : 「2025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 (인프라 불균형) 기초 지자체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지원 중('19년~)이나, 지역별 장애인구(수요)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급) 불균형
 - 부지 확보 문제로, 장애인구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시설 건립 미진

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 · 생애주기별 평생 체육활동 형성 지원
- 장벽없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 (전문체육 경쟁력 제약) 장애인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층 고령화, 세대교체를 위한 국내 개최 국제대회(연 10개 미만)·리그전(8종목) 등 실전 경험의 장 부족

② 장애인체육 국내·외 위상 강화

- ➔ ·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 장애인 스포츠 미래 경쟁력 확보

기대효과

- 장애인 생활체육 기회 확대 및 수요자 체감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 생애주기별 평생 체육활동 형성 지원

○ (추진방향) 유·청소년부터 청·장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평생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

□ 유·청소년 장애인 운동습관 형성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비장애인 대비 높은 비만율* 해소 등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장애인 유·청소년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교육부 협의)
 - * 20-29세 장애인 비만율 43.1%, 비장애인(31.2%) 대비 높은 비만율 관찰('24년 국립재활원)
 - 장애유형별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모델 개발('27년, 종목 선정·지도법 개발 등)
 - 평일 오후·주말·방학 등 활용 장애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26년~, 450개소)
- (발달장애 꿈나무 지역리그) 지역 체육활동 프로그램(수영, e스포츠 등)과 연계한 정기 리그 수시 개최*로 실전 성취감 제고 및 운동 습관 정착('27년~)
 - * 참여도 높은 종목 중심으로 지역 체육시설에서 격주·월·분기별 운영(20개 기초단체 지원)
- (어울림 문화 확산) 장애·비장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통합체육교실 확대('27년~) 및 어울림 운동회 개최('27년~)
 - * (교실수) '26년 170개 → '30년 400개

□ 전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경험

-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운동 참여 의지가 낮고, 경험한 적 없는 장애인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여 개인별·맞춤형 강습 제공('27년)
- (장애인스포츠클럽 활성화) 공공체육시설·학교·유흥시설을 활용한 지정스포츠 클럽을 확대*하여, 지역 내 청·장년 장애인스포츠참여 활성화('26년~)
 - * 확대(안): '25년 12개 → '26년 22개 → '30년 62개(매년 10개소씩 확대)
- (장애어르신 특화 종목 개발·보급) 장애와 노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 어르신 특화 종목 개발 및 확산('27년~'30년, 10개 종목)
- (바우처 확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연령 상한 완화('27년/보건복지부 협의) 및 지원 확대('26년 2.6만명, 월 11만원→'27년 3.2만명, 월 12만원)
 - * '26년 지원 현황: 5세~69세 등록장애인 대상 월 11만원 지원(소득 무관)

2 장벽없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추진방향) 촘촘한 장애인 체육시설 구축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제고

□ 제약없이 이용하는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 (지역 불균형 해소)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30년까지 40개)과 함께, 지역 수요(장애 인구, 기존 시설 등), 부지 여건 등 고려한 리모델링 지원('27년)
* 지역 노후 체육시설(특수학교 체육관, 장애인전용체육시설 등) 리모델링 통해 부지 확보 문제 해소
- (반다비-지역복지관 연계 강화) 복지관 등 장애인시설과 반다비 체육센터 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27년/보건복지부 협의)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개설, 이동 수단·보조 인력 지원 등
- (안전환경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시설 내 안전 보조 인력 배치 지원*('27년) 및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26년)
* 체육·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등 활용, 현장실습시간 및 봉사시간 인정 등

□ 장애인 체육 지도 기반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특수지도수당, 장기근속수당(2년 이상 근무자) 및 성과 인센티브* 신설 추진('27년~)
*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편성
- (교육·체험 활성화) 올림픽공원 내 장애인체육 교육·체험장 조성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추진('27년~/교육부 협의)
*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실시(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벽 해소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 (패널조사 실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에 대한 '패널조사(동일대상자 장기 추적조사)' 실시하여('27년/국가데이터처 협의) 정확한 정책 효과 분석
* 사례 : 보건복지부장래인삶 패널조사('18년~), 고용노동부장래인 고용 패널조사('08년~)
- (장애인 체육시설 실태조사)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야외체육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 현황 및 접근성 정기 실태조사('27년/지방자치단체 협조)

2 장애인체육 국내·외 위상 강화

1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추진방향) 장애인 전문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망을 구축하여 경기력 강화

□ 장애인 대회 개최·참가 활성화

- (국제대회 개최 확대) 세계선수권대회 등 랭킹포인트·출전권을 부여하는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25년 8개 대회 → '30년 34개 대회)
 - * 비장애인 대비 국제대회 개최 예산지원이 11.5% 수준에 불과('25년 기준)
- (리그전 활성화) 장애인 종목별 리그전 지원 확대('26년 8종목→'30년 23종목)

□ 장애인 전문체육 시설 확충

- (이천선수촌 고도화) 보치아선수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 및 스포츠 의·과학시설을 갖춘 훈련장 건립 추진('27년~)
 - 이천선수촌 건립('09년) 이후 노후화된 시설·장비 보강 통해 안전관리 강화
- (동계종목 인프라 보강) 고가 장비 보관을 위한 해외 거점(주요 국제대회 개최지) 마련 및 평창 동계훈련 공간 확충('27년~) 통해 동계스포츠 경쟁력 강화

□ 장애인 전문체육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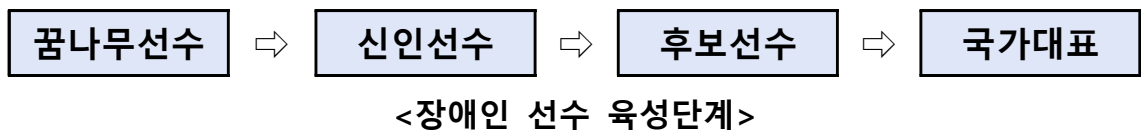
- (등급분류 선진화) 장애인 전문체육의 근간인 등급분류 체계화*를 지원하여 경기의 공정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26년~)
 - * 등급분류사 양성 강화(등급분류 교육 기회 제공, 등급분류 심사 지원 등) 및 종목별 등급분류 규정 제·개정(IPC, IF의 등급분류규정에 정합적인 국내규정 마련) 지원
- (은퇴선수 재참여 지원) 장애인 은퇴선수 교육 아카데미 설립·운영('28년~)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교육 ▲스포츠산업 창업 교육 ▲스포츠 분석가 교육 등
- (스포츠과학 고도화) 장애유형·종목 고려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27년~) 및 맞춤형 장비 개발
 - 운동능력·체력 정밀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장애인스포츠 과학센터 설치 추진(~'30년, 5개 권역)

2 장애인체육 미래 경쟁력 확보

○(추진방향) 신규선수 체계적 양성 및 국제교류 확대 등 통해 장애인체육 선진국가 도약

□ 장애인 신규선수 발굴 체계 개편

- **(발굴단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장체회·종목단체 합동 ‘장애인선수 발굴단’ 통해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선수발굴 기능 체계화(‘26년~)
- **(교육청 등 협력)** 시도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재활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사업 홍보·안내 및 협력체계 확보(교육부 협의)
- **(계단식·단계적 육성)** 기존 신규 선수 육성사업을 통·폐합하여 경기력에 따른 계단식·단계적 육성체계 마련(‘26년~), 명확한 성장로드맵 제공
- **(꿈나무선수)** 기존 5종목에서 패럴림픽 전 종목으로 발굴·육성 확대(‘26년~)
- **(유망선수)** 중장기전력(신인선수)과 즉시전력(후보선수) 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훈련지원 통해 국가대표 후보군 안정적 확보



- **(스포츠캠프 확대)** 장애학생 대상으로 엘리트체육 종목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하계 스포츠캠프’ 종목 확대(‘26년 5종목→’30년까지 패럴림픽 20종목)

□ 장애인스포츠 글로벌 도약

- **(국제스포츠 리더십 확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등 주요 국제기구 진출 지원* 통해 스포츠 외교력 강화(‘26년~)
- * ‘26년 APC 선수위원, ‘27년 APC 집행위원 당선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추진 등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아시아(몽골, 미얀마, 네팔, 인도 등)·아프리카(기니, 케냐 등) 개도국 대상 스포츠아카데미, 장애인 스포츠용품 지원 등 추진(‘26년~)
- **(미래세대 친선 교류 확대)** 한·중·일 등 인접국(‘27년~) 및 주요 거점국 간 미래세대 장애인선수 교류 활성화하여 우호 관계 증진
-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국내행사에 상호초청, 스포츠아카데미·친선대회 등 추진

[전략 5]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스포츠

현황 진단 및 전략

-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중심 정책에서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자산으로서 대회 전주기·인재·산업과 국제 네트워크의 동반 성장 전략 필요
- 한국은 “선수 강국이나 행정 약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대회 경기력 성과에 비해서 국제기구 진출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단순 참가가 아닌 국제스포츠 의사결정 구조 진입이 국익과 직결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동계종목 IOC 위원 2명 배출 (김재열 빙상연맹 회장, 원윤종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IF 사무국 등 21명 신규 진출
-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를 통해 축적된 스포츠 유산과 한국의 전통 스포츠를 K-스포츠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

①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체계화
- 국제스포츠 선도국가 도약 기반 구축

② 한국의 매력을 담은 K-스포츠유산*의 활용 강화



- * 국립스포츠박물관, 동계스포츠 시설 등
- 일상에서 즐기는 K-스포츠유산
- 한국 전통스포츠(태권도/씨름·전통무예)의 성장동력 확충

기대효과

- 시기별·종목별·규모별 전략적 국제대회 유치로 유치 성공률 제고, 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기여 등 국제대회 개최효과 극대화
- 글로벌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 및 국제스포츠 대회를 모멘텀으로 활용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국제인재 배출 확대
- K-스포츠유산 체험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전통스포츠 종목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K-스포츠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전승 도모

1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1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체계화

- (추진방향) 국제대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추진 및 정부의 국제대회 유치·승인 절차 체계화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 (전략 수립) ①전략 종목·시설 등 연계, ②체육 저변 확대 ③지역경제 기여도 제고하도록, 종합적·중장기 유치 전략 및 포트폴리오 설정('27년~)
- 시기별·종목별·규모별 전략 유치대회 설정으로 지자체 간 과열경쟁, 심의 과정에서의 행정부담, 낮은 유치 가능성 및 부실 개최 문제 완화

참고사례 · 덴마크, 국제대회 유치 전문기구(SED) 운영, 국제경기대회 유치 성공률 80%
· 영국, 10개년 계획으로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 개최 포트폴리오 관리
· 아일랜드, 5년 내 2회 이상 메가 이벤트 개최 지양 등 정부 가이드라인 운영

-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대회별 특징, 요구 시설·인프라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자체·종목단체 대상 정보 제공 확대('27년~)

□ 승인절차 체계화

- (법적용 대상 정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적용 대상 대회를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메가이벤트*로 정비(시행령 개정, '26년~)

*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세계선수권 및 아시아선수권 대회

기존		개선	
법	1. 올림픽 2. 아시안게임 3. 유니버시아드대회 4. 월드컵 5. 세계육상선수권 6. 세계수영선수권	법	(동 일)
시행령	1.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아태마스터즈대회	⇒	시행령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세계선수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 (조사 강화)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조사 의뢰하도록 개선, 조사 일관성·신뢰성 강화(법 개정, '26년~)
- 국고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지원대회의 경우, 약식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행사 주관단체 부담 경감 및 대회 유치 유인 제공

2 국제스포츠 선도국가 도약 기반 구축

○ (추진방향) 주요 국제대회 개최, 국제스포츠 인재 양정으로 국제스포츠 선도국가 도약 기반 마련

□ 주요 국제대회 및 종목별·지역특화형 국제대회 개최 지원

- (주요 국제대회 유치) 체육 발전과 국가 위상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하계 올림픽 및 아시안컵 등 메가이벤트 유치 추진
- (선수권대회 유치) 전략종목·전략대회 유치 지원으로 선수, 기술임원·대회 운영 전문가 역량 강화 및 개최지역 경제 활성화('27년~)
 - 한국 경쟁력 보유 종목, 올림픽 출전권 및 세계랭킹 포인트 확보 대회 현황, 지역별 시설·인프라, 지역관광 연계방안 등 분석(국제대회 DB 구축 후 연계 추진)
 - * (효과) ▲선수는 익숙한 환경에서 대회출전, ▲기술임원·대회 운영 전문가는 국제연맹(IF)와 협업 경험, ▲지자체는 연맹 회의·용품 박람회 등 MICE 산업 연계로 경제 활성화
 - * (예)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 47개국 2000명 출전, 입장권 판매액 12억원, 관중 3만명
- (지역대회 육성) 보스톤마라톤, 투르드프랑스와 같이 지역대표 국제대회 장기 지원 및 브랜드화로 지역발전 도모('27년)
 - 대회 연계 부대행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 체계적인 국제스포츠 인재 육성

■ 중요성 IOC(올림픽위원회), CAS(스포츠 중재재판소), 60여개 종목별 국제연맹(IFs)에서 경기 규칙 대회 개최지 선정 선수 자격 등 결정	■ 트렌드 IOC 위원장을 비롯 IOC 위원 106명 중 올림피언이 42명일 정도로 선수 출신이 국제스포츠행정 주도, 장기 후보군 육성 필요
---	---

- (인재풀 구축) 국제기구 진출가능 인력 DB 구축, 분야별(행정·기술·대회 운영·선수위원)·종목별·직급별 관리 및 IF 공석 발생 시 추천('27년~)
- (단계적 진출 지원) ▲입직준비(대학생·선수 등), ▲채용 지원(국내 종목단체 국제업무 인력·국제기구 인턴 등), ▲현직자(심판, 행정가 등) 역량 강화, ▲고위급 인력양성 등 단계별 맞춤형 국제스포츠계 진출 지원

2 한국의 매력을 담은 K-스포츠유산의 활용 강화

1 일상에서 즐기는 K-스포츠유산

- (추진방향)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쌓아온 K-스포츠유산의 역사를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대한민국 최초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26.10.15 예정)

- (운영 방향) K-스포츠의 기원과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의 역사 등 전시 및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K-스포츠 가치 확산 거점* 기능('26년)

*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내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228㎡

주요 유물 예	교육·체험프로그램 예
• 서윤복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메달 • 송신남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 금메달 • 1988년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의상스케치 등	• 어린이박물관 : 스포츠종목 상시 체험 • 교육 : 장애체험, 스포츠진로체험, 가족친화, 시니어 건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국민참여 강화) 박물관 소장 기록과 유물*을 디지털화하여 순차 공개, 국민이 K-스포츠유산 확산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온라인 기획 전시 추진('27~)

* 유물 약 7만여점(우승컵, 메달, 장비류, 문서, 인쇄물, 영상물, 각종 기념품 등), 구술채록 등

□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강화

- (시설 활용 제고) 평창·강릉 경기장에서 동절기에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동계스포츠프로그램을 일반인·사계절 체험형 등으로 다양화('27년)

현 재 (동절기, 청소년 위주)	확 대 (사계절, 일반인·해외선수)
• 드림프로그램(개도국 청소년, 빙상/설상 등) • 수호랑반디캠프(국내 청소년, 빙상/설상 등)	• 일반인 상시체험 프로그램 예 : 튜브 슬라이딩, 롤러 스키, 레이저 사격 강습 등 • 해외 동계종목 선수 훈련 유치 예 : 봅슬레이 등 썰매 장비 임대, 프로그램 운영 대행 등

- (기념시설 조성) 현재 평창에서 운영 중인 동계올림픽기념관*을,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계기로 정선군에도 조성 추진 검토('27년)

* 평창올림픽기념재단이 평창에서 기념관을 운영 중이며, 현재 정선군은 가리왕산 하부를 산림형 정원, 2018동계올림픽기념관 등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용역추진 중('26~)

2 한국 전통스포츠의 성장동력 확충

- (추진방향)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등 한국 전통스포츠의 지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종목별 핵심 지원사업 추진

□ 한류원조 태권도와 관광·IT기술의 융복합 추진

- (관광 콘텐츠화) 태권도가 한국 관광의 매력을 더하도록 스토리가 살아 있는 태권도 공연콘텐츠 개발(~'27년) 및 지역 상설 공연 추진('28년)

[현행] 기술 위주, 부정기 공연	[개선] 스토리가 있는 정기 공연
• (콘텐츠) 태권도 기술 위주 • (공연장) 국가·지자체 주요행사 계기 태권도 시범단의 부정기적 공연	• (콘텐츠) 스토리텔링형 태권도 시범, K-pop 태권댄스, 체험형 프로그램 결합 등 개발(~'27) • (공연장) 주요 지역 관광거점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정기적 공연 추진('28~)

- (가상태권도 육성) 국내 최초로 태권도원*에 가상의 공간에서 신체접촉 없이 실력을 겨루는 버추얼태권도 훈련장 조성 및 선수·심판 양성 추진('26년)

*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운영)이 세계태권도연맹 중앙버추얼 월드트레이닝 센터로 지정('26.2월)

** ('26년) 훈련장 조성 및 시범교육 → ('27년~) 교육확대 및 국제 대회개최



□ 씨름·전통무예에 활력을 주는 진흥 기반 구축

- (씨름 보존·체험 확대) 근대씨름 100주년* 계기 기념대회 및 행사 개최, 씨름 기술의 디지털 기록 보존 등 지원 강화(~'27년)

* 1927년 조선씨름협회 창립 및 제1회 조선씨름대회 개최(동아일보 후원)

- (전통무예 진흥 추진) 태권도 진흥의 성공사례를 전통무예에도 접목하여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패키지형 지원체계 본격 가동('27년)

전통무예 육성 관련 제도 (예)	주요 체험·진흥 사업 (예)
•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 전통무예 지도자 육성 • 주기적인 전통무예 실태조사 추진 등	• 무예 체험 캠프 운영 • 지역 축제, 스포츠행사 연계 체험이벤트 추진 • 씨름, 태권도 등 관련 종목간 연계 체험 등 • 국제 연무 대회 개최 등

IV. 추진 일정(안)

추진과제		추진일정				
		'26	'27	'28	'29	'30
추진전략 I.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1. 전 국민의 체계적 스포츠활동 지원						
(1) 국민 평생 건강관리 체계 마련						
	전 국민 체력인증 활성화					
	운동하는 국민에게 동기부여					
	국민 체력-보건의료 연계를 위한 기반 구축					
	생활체육 현장 기반 스포츠 AX 확산					
	대국민 운동 장려 캠페인 추진					
(2)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활성화					
	청·장년층 스포츠활동 지원					
	어르신에 맞춘 스포츠 참여 길잡이					
2.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스포츠환경 조성						
(1) 적극적인 공공스포츠시설 공급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					
(2) 스포츠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스포츠시설 세제혜택 확대					
	'먹튀'방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공공체육시설 안정적 이용환경 조성 및 운영 효율화					

추진과제		추진일정				
		'26	'27	'28	'29	'30
3. 스포츠시설 및 행사 안전 강화						
(1) 스포츠시설 안전 강화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					
	스포츠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2)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강화						
	스포츠행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강화					
	종목별 대회 안전 강화					
추진전략Ⅱ.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1.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 재구축						
(1) 체육단체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완수						
	대한체육회 감사역량 확대					
	체육단체 거버넌스 혁신 완수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우수선수를 위한 전문시설 고도화					
	전문선수 지원 거점 조성					
(3) 국가 스포츠과학·데이터 허브 구축						
	스포츠과학 지원 선진화					
	스포츠 분야 데이터 허브 구축					

추진과제		추진일정				
		'26	'27	'28	'29	'30
2. 미래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1) 학교 안·밖의 균형 있는 체육인재 육성						
	학생선수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기반 조성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역량 강화 지원					
(2) 선수·지도자·심판이 함께 성장하는 선진 시스템 구축						
	지도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심판 육성					
3. 체육인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를 보호하는 안전망 확충						
	체육인 보편적 복지 점진적 확대					
	체육인 사회보험 보장 확대					
	체육인복지 시책 수립 및 정책기능 강화					
(2) 폭력 없는 건강한 체육계 만들기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신고자 익명성 보장 강화					
	조사 및 징계 실효성 확보					
	스포츠 폭력 시 불이익 강화					

추진과제		추진일정				
		'26	'27	'28	'29	'30
추진전략Ⅲ. 혁신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산업						
1. 스포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혁신						
(1)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스포츠기업 성장 하이패스 구축					
	수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스포츠기업 육성					
(2) 스포츠산업의 기초역량 강화						
	스포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스포츠기업 AI 전환지원					
	스포츠산업 통계 고도화					
(3)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K-스포츠·K-팝 팬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경륜·경정장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					
2.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K-프로스포츠						
(1) 프로스포츠 공정성 강화						
	공정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프로축구 심판 역량 고도화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환경 조성					
(2)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프로스포츠 팬 저변 확대					
	프로스포츠 구단 지속 성장 기반 마련					
3.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즐기는 스포츠 토토						
(1)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						

추진과제		추진일정				
		'26	'27	'28	'29	'30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					

(2)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및 건전한 베팅문화 확산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 강화					
	건전 베팅문화 확산					

추진전략Ⅳ.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1) 생애주기별 평생 체육활동 형성 지원

	유·청소년 장애인 운동습관 형성					
	전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경험					

(2) 장벽없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제약없이 이용하는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장애인 체육 지도 기반 강화					
	장벽 해소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2. 장애인체육 국내·외 위상 강화

(1)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장애인 대회 개최·참가 활성화					
	장애인 전문체육 시설 확충					
	장애인 전문체육 기반 구축					

(2) 장애인 스포츠 미래 경쟁력 확보

	장애인 신규선수 발굴 체계 개편					
	장애인스포츠 글로벌 도약					

추진과제		추진일정				
		'26	'27	'28	'29	'30
추진전략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스포츠						
1.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1)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체계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승인절차 체계화					
(2) 국제스포츠 선도국가 도약 기반 구축						
	주요 국제대회 및 종목별·지역특화형 국제대회 개최 지원					
	체계적인 국제스포츠 인재 육성					
2. 한국의 매력을 담은 K-스포츠유산의 활용 강화						
(1) 일상에서 즐기는 K-스포츠유산						
	대한민국 최초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강화					
(2) 한국 전통스포츠의 성장동력 확충						
	한류원조 태권도와 관광·IT기술의 융복합 추진					
	씨름·전통무예에 활력을 주는 진흥 기반 구축					